



#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및 비판적 사고 성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비교

지도교수 김수진

고기호, 안병준, 강민채, 공태운, 류희수, 김세봄, 김세린, 박소영, 이소현, 류지수, 윤지원, 박지연, 노하은

## I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사회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됨.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의료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여 보건의료인들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함.

보건계열 전공자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함.

학생들의 전공이 보건계열인지 비 보건계열인지에 따라 생명윤리의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임.

추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생명윤리의식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함.

## II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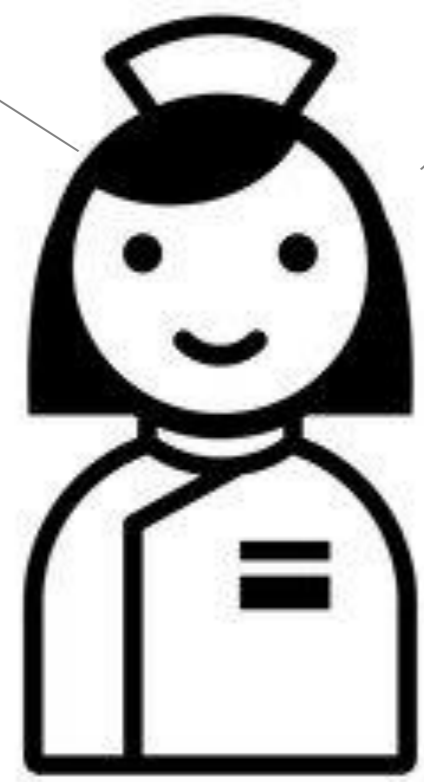
첫째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둘째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다.

## III 연구의 가설

보건계열 대학생이 비 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생명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생명윤리의식과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낼 것이다.

## IV 용어 정의

### 생명윤리의식

개념적 정의: 생명 관련된 문제를 옳고 그름의 도덕적 차원에서 판단할 때 나타나는 일관성 (김승주, 2016)  
 조작적 정의: 이명숙(1990)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권선주(2003)가 수정·보완한 설문지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76 본 연구: Cronbach's  $\alpha$  = .81

### 비판적 사고성향

개념적 정의: 간호사의 이해력과 특정 지식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지향적 대안 제시하며 임상 상황과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Daly, 1998)  
 조작적 정의: CCTDI를 황지원(199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Facione et al., 1994)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5 본 연구: Cronbach's  $\alpha$  = .87

### 연명치료 중단

개념적 정의: 환자가 자연적 죽음에 이르러 가는 의도를 갖고 생명을 연장하는 의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행위 (장영미, 2019)  
 조작적 정의: Park[22]이 개발하고 Byun 등[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8 본 연구: Cronbach's  $\alpha$  = .81

### 의사결정

개념적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결정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Etzioni, 1968)  
 조작적 정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해결능력

개념적 정의: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이며 창의적 능력을 말함. (Lee et al., 2003)  
 조작적 정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9 본 연구: Cronbach's  $\alpha$  = .70

## V 설계 및 방법

- 연구 설계
  -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
- 연구 대상자
  - 청주시 C대학의 대학생 140명 (3명 탈락)
  - 표본의 추출방법 : G-power 3.1
-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 2019년 8월 31일~ 2019년 10월 13일
  -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를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 자료 분석
  - SPSS/WIN 22.0 program
  - 교차분석, t-test, 피어슨 상관(Pearson's correlation)

## VI 연구 결과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and Not Majoring in Health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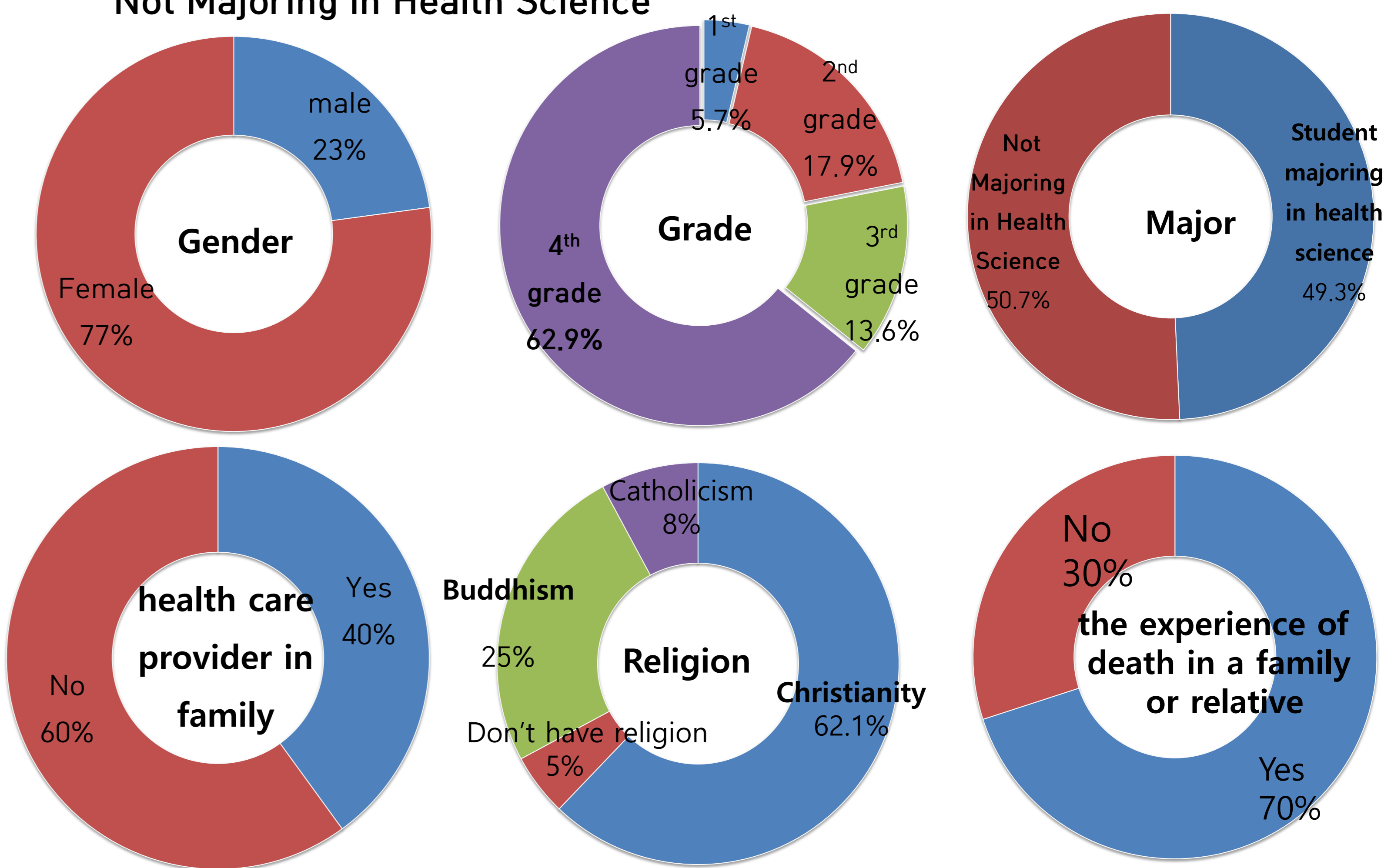


Table2. Difference in th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 Problem solving abilit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and No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140)

Variables	Studen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69)	Student no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71)	t or F(p)	p
	M±SD	M±S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103.13±11.11	104.91±10.14	-.982	.328
Problem solving ability	118.11±14.41	117.25±16.52	.327	.744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46.77±9.12	46.80±7.59	-.020	.98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12.17±18.05	111.91±24.45	.186	.853

Table3. Correlation betwee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 Problem solving abilit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and No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140)

Variables	Studen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69)				Student not majoring in health science (n=71)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roblem solving abilit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roblem solving abilit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1				1			
Problem solving ability	.203 (.091)	1			.209 (.082)	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15** (<0.01)	.086 (.480)	1		.219** (<0.01)	-.076(.53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69**(<0.01)	.737**(<0.01)	.114(.349)	1	.271**(<0.01)	.743**(<0.01)	-.093(.443)	1

## VII 논의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
  - 비판적 사고성향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없음.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의 관계
  -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생명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
  - 생명윤리 성향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문제해결능력과 생명윤리의식의 관계
  - 문제해결능력과 생명윤리의식은 정적 상관관계가 없음.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문제해결능력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
  - 문제해결능력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없음.
-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관계
  -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VII 결론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은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대부분 받았으나,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던 비 보건계열학과 학생들과 생명윤리의식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보건계열에서 생명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상관관계수  $r=0.26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0.01$ ) 생명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관계는 상관관계수  $r=0.2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0.01$ ) 비 보건계열에서 생명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상관관계수  $r=0.27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0.01$ ) 생명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관계는 상관관계수  $r=0.21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0.01$ )  
 ⇒ 이러한 결과는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주제는 비 보건계열의 학생이나 비 보건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며, 함께 고민하고 갈등을 해결해나갈 생명윤리교육 경험이 모두에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